국토교통부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8. 31.(월) 11:00 이후(9. 1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8. 31.(월)

코레일-에스알 9월 1일 하나로...
안전 최우선, 더 편리한 고속철도의 시작

【관련 국정과제】 57.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

-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해 9월 1일 기관통합·통합운행 본격 시작
-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 초기 현장점검 강화… 안정적 운영에 총력
- 주중 약 1.5만석/일·주말 최대 약 1.7만석/일 추가 공급, 수서축 좌석 약 30% 확대
- KTX 운임 평균 10% 인하·마일리지 5% 적용 확대··통합 앱 '코레일+'로 편리하게 예매
- 에스알 직원 고용·처우 보호… 통합 후에도 안전·서비스·재무 등 지속 관리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윤덕)는 **한국철도공사**(이하 코레일)와 **에스알**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, **9월 1일부터** KTX와 SRT는 **KTX로 통합**하여 **본격적으로 운행**을 **시작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, **좌석공급 확대**, **운임·마일리지 개선**, **통합 예매서비스** 등 **국민**이 직접 **체감**할 수 있는 **변화**가 본격화된다.

□ 정부와 코레일은 최근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, 통합 초기부터 **안전**을 **최우선 가치**로 두어 **안정적**인 열차운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

○ 우선,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운영체계 전환 과정에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**현장 중심의 안전관리**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 **국토부**와 **관계기관**이 기관사의 교육·훈련 등 준비상황, 중련열차의 연결·분리 작업, 열차지연 등 이례상황 대응,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관리 등 **예상되는 문제**에 대해 **통합 개통 전후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.**

○ 연말까지 **비상대응반도 상시 운영**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**이례사항**과 **국민 불편사항**은 **신속히 조치**한다. 9월 중 수서고속선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 종합훈련도 시행할 계획이며, 필요한 경우 인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여 **통합 초기 운영**이 **안정적**으로 **정착**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지난해 12월 「**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**」을 발표한 후 **전문가 토론회**와 **국회 공청회, 격주 단위의 노사정 협의체** 등을 통해 **각계의 의견을** 폭넓게 **수렴**하고 통합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하였다.

○ **열차운행의 통합**을 위하여 2월 **교차운행**과 5월 **중련운행**을 **시범실시**하여 실제 운행환경에서 **안전성**을 **검증**하고, 이용수요와 지역 형평성,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**통합 열차운행계획도 마련**하였다.

- 또한 **8월 3일**에는 '코레일톡'과 'SRT'로 분리되어 있던 **예매 앱**을 **통합**한 '**코레일+**' 앱을 **출시**하였다.

○ **재정경제부·공정거래위원회** 등 **관계부처**와 **긴밀히 협조**하여 **인력정원 협의**와 **기업결합 심사**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, 사업양수도 인가, 철도사업계획 변경,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필요한 **법정·행정절차**도 **모두 완료**하여 **9월 1일 통합**을 위한 **준비**를 **마쳤다**.

□ 통합 조직의 형태는 **열차운행의 연속성**과 **안정성 유지**를 위해 기존 코레일 조직 내에 SR의 업무를 승계하는 '**통합사업관리부문**'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**자율적 권한**을 **부여**한다. 통합사업관리부문은 **최대 3년**의 **조직 안정화 기간** 내에서 운영하되, 1년 후 통합 이행정도와 조직 안정화 상황 등을 평가하여 **운영기간을 결정**할 계획이다.

○ 인력과 관련해서는 **SR 직원**의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을 전제로 **포괄 고용승계**하고, 고용·직무·보수·복지 등 **세부사항**은 **노사 협의**를 통해 **조정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9월 1일부터** 새로운 고속철도를 통해 **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변화**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, 이외 양사의 공공할인 및 임산부·청년 할인 등 서비스도 모두 **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**하였다.

구분	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
좌석공급	· 주중 하루 약 1.5만석, 주말 최대 약 1.7만석 추가 공급
	· 수서축 좌석 약 30% 확대
운임·마일리지	·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하여 평균 10% 인하
	· 수서축 노선에도 결제금액 5% 마일리지 적립
예매편의	· 통합앱 '코레일+'에서 모든 열차를 한번에 검색

○ 아울러, **중장기적**으로는 **2027년**부터 기존 KTX-산천 대비 편성당 약 90석이 많은 **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**(1편성당 8량, 500석)을 **순차**적으로 **도입**하고, **평택~오송 구간 2복선화** 등 철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**좌석공급**을 **지속 확대**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**정부**와 **코레일은** 통합 이후 국민에게 안전 최우선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면서, 양 기관의 역량을 조화롭게 융합하고, 재무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**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**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(**서비스**) 통합으로 운영주체가 하나가 된 이후에도 **서비스 수준**이 **저하되지 않도록** 지속적으로 **점검·개선**한다.

- 고객만족도, 정시성, 예매 편의, 안내체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서비스 수준**을 **지속 점검**하고, 고객의 소리(VOC) 등 **이용객 의견**을 **운영에 적극 반영**할 계획이다.

○ (**조직 안정**) 통합 이후에도 **노사정 협의체**를 **지속 운영**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, 안정적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- 특히 **에스알 노동조합**이 이행을 요청한 **에스알 직원의 고용**, **처우보호**와 **제반 합의사항**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사정 협의체에서 **지속 점검**할 계획이다.

○ (**재무**) 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인 철도서비스 제공과 안전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코레일**의 **재무건전성**을 **지속적**으로 **관리**한다.

- 좌석공급 확대에 따른 **운송수입**과 통합에 따른 **비용절감 효과**, **재무지표** 등을 **지속적**으로 **점검**하여 **국민편익**과 코레일의 **재무건전성**을 균형감 있게 **확보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코레일·에스알 양사 노사**는 통합 과정에서 **지속적인 소통**과 **협의**를 통해 안정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, **통합 이후에도 상호 존중**과 **신뢰**를 바탕으로 **조직**의 **화합**과 **안정적인 운영**에 **힘을 모을 계획**이다.

○ 특히 **철도 안전**과 **국민 편의**를 **최우선 가치**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, 양 기관의 경험과 역량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도록 **노사가 함께 노력**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**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**은 “통합의 출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, **국민께서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**, **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**”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**김태승 코레일 사장**은 “통합 이후에도 철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,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으며,

○ **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**는 “그동안 에스알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며 꾸준한 역량을 쌓아왔으며, 이런 경험과 전문성이 코레일에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져,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로 국민께 돌아가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정책과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책임자	팀 장	정덕기 (044-201-5281)
		담당자	서기관	허 온 (044-201-5285)
		담당자	사무관	신윤선 (044-201-5287)
		담당자	주무관	이상민 (044-201-5286)
		담당자	주무관	송인규 (044-201-5283)
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서기관	임상준 (044-201-4631)
		담당자	사무관	심동휘 (044-201-4636)
		담당자	사무관	송대종 (044-201-4632)
	한국철도공사 통합전략실	책임자	실 장	홍영호 (042-615-6340)
		담당자		강지연 (042-615-6346)
	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통합관리단	책임자	단 장	권요섭 (02-6484-4810)
		담당자		염경하 (02-6484-482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TOMORROW